



본당 통합소개

복음의 동반자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사명을 위해 본당 생활을 재구상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본당 가족을 위한 전략적 사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본당 가족이 어떻게 하나의 정통적인 본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복음서 28, 19-20

하나의 본당 계획 프로세스는 서부 워싱턴의 가톨릭 교회를 보다 폭넓게 재구성하고 재구상한다는 맥락 내에서 현지에서의 의사 결정을 촉진합니다.

전략적 사목 계획(앞으로 **하나의 본당 계획**이라고 함)은 본당 가족 간에 일련의 대화를 거치고 자문기구와 함께 완성하는 작업의 도움을 얻어 생성되고 본당 가족이 하나의 정통적인 본당이 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독립형 본당도 하나의 본당 계획을 완료합니다. 이 본당들은 자체적인 하나의 교구 계획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상 기간은 얼마인가요?

전략적 사목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며, 여러 해 동안 달성되지 못할 수 있는 충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약 2~3년이 소요되지만, 계획은 승인 후 5년 내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주요한 과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제의 결실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짧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One Parish Plan은 본당 가족이 하나의 정통적 본당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략적 사목 계획 도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본당 가족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며, 공유된 비전과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재구성으로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핵심 질문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본당 계획 문서에는 전체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침(양식 및 워크시트 포함)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당 연락 담당자와 PME(계획 및 사명 효과성) 팀이 그 과정에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본당 계획 초안이 준비되면 대주교의 최종 검토에 앞서 하나의 본당 계획 검토 위원회(본 문서의 뒷부분에서 논의될 것임)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의 본당 계획 프로세스는 네 가지 주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질문에는 자체 지침 섹션, 제안된 일정, 완료에 필요한 자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은 본당 생활의 중심이 되어 온 역사, 사람들, 은사, 사역을 이해하고 이에 감사하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이 질문을 통해 *현재* 본당 가족에 존재하는 기회와 도전을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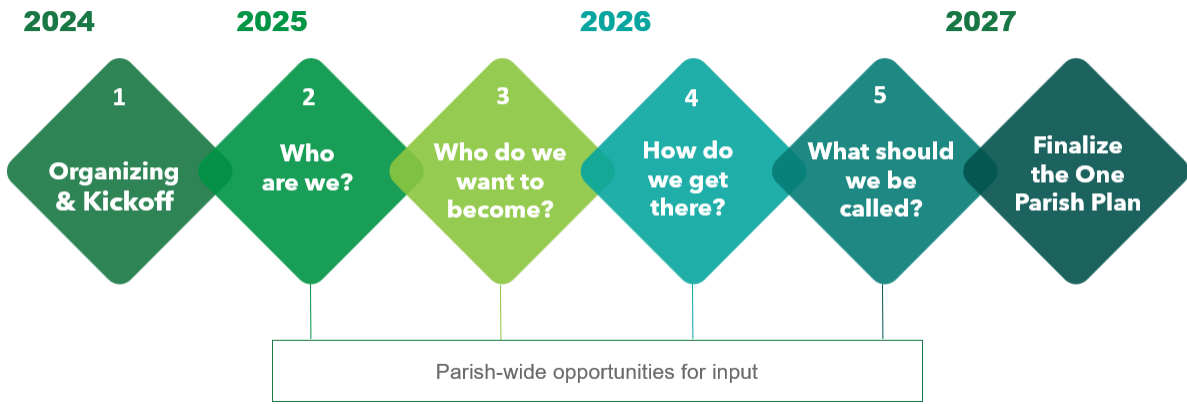
이 질문을 통해 현재 본당 가족이 누구인지, 본당 가족이 잘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된 기회와 도전에 본당 가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성령께서 선교적 제자로 봉사하도록 본당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본당 가족은 함께 협의하여 성령께서 마태오 복음서 28장의 부름을 따라 살도록 어떻게 본당 가족을 부르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됩니다.

-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 할 것인가요?**

이 질문은 본당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새로운 정통적 본당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원의 필요성, 시기, 예상되는 결과,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현재의 본당 가족이 누구이며 본당 가족이 하나의 정통적 교구를 형성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통적 본당의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라고 공동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이 네 가지 질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본당 가족 서로, 또 성령께서 본당 가족에게 미래에 포용하라고 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분별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이지 특정 의제가 진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의 본당 계획 프로세스가 전개되면서 본당 가족 리더십이 육성하는 데에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 책임 및 하나의 본당 계획

하나의 본당으로서 함께 모이는 일의 중심은 교회의 삶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 책임, 우리 모두 받은 세례에 뿌리를 둔 책임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본당 생활에서의 공동 책임은 성직자, 자원 봉사자, 평신도 지도자 등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 공유하는 책임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 디 에티엔 대주교는 공동 책임과 세례 안에 있는 그 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과 세례에 뿌리를 둔 것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신학적 근거가 있는 이러한 정체성에 들어갈수록,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동 책임을 포용하고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

이 전략적 사목 계획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복음의 파트너들은 협의과 협력에 의존하여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서부 워싱턴 내 가톨릭 교회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인 하나의 본당 계획의 수립은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 지원 직원, 본당 사람들이 함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잘 듣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간 계획 및 프로세스의 단계

전략적 사목 계획 프로세스는 5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조직 구성 및 착수

팀을 구성하고 향후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5년 1월~3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1~3개월입니다.

2. 우리는 누구인가요?

본당 가족 공동체, 그 역사, 은사와 매력, 현실, 본당 가족 공동체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이는 본당의 각 가족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취합하여 본당 가족인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5년 4월~6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3~6개월입니다.

3.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 단계에서 본당 가족은 현재의 현실과 더 효과적인 선교적 제자가 되라는 부름에 비추어 함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당 가족이 이 비전을 어떻게 달성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반영하는 과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5년 10월~12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6~9개월입니다.

4. 그렇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단계에서 본당 가족은 앞 단계에서 작성한 과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자원, 인력, 재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6년 7월~9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6~9개월입니다.

5.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 본당 가족은 사명과 이에 대한 지원 활동 계획에 중점을 두고 앞 단계에서 수행한 모든 작업을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본당 가족은 이 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구 이름의 후보를 정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7년 4월~6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1~3개월입니다.

6. 보고서 작성

이 단계에서 본당 가족은 연락 담당자와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본당 가족이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한 문서를 취합하여 하나의 본당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의 시작은 2027년 4월~6월을 제안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1~3개월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본당 가족은 기도를 통한 분별력에 뿌리를 둔 광범위한 협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와 기도를 통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의 본당 계획을 작성할 때 성령의 인도에 열려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에 본당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방법과 공동체 분별력을 위한 과정의 지침은 상세한 하나의 본당 계획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